

문화광장



김미란 문화예술학 박사·공연기획자

제주의 봄, 문화로 먼저 깨어난다

관악제 봄 시즌은 전석 무료 공연으로 예술의 문턱을 낮추며, 수준 높은 음악을 시민의 일상 가까이로 끌어온다. 이는 단순히 관람객 수로 환산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공기를 예술적 선율로 채우는 '공공재로서의 예술'을 상징한다.

서귀포시의 거리공연가(버스커) 모집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거리예술을 도시 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키워 가려는 시도다. 여기에 공공미술 해설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예술 축제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걷고 보고 대화하며 도시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습들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형식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제주의 봄은 단순히 즐기고 소비하는 '관광의 계절'이기 이전

에,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보고 듣고 걷는 '문화의 계절'이라는 점이다.

문화예술이 봄을 연다는 말은 단순히 행사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시민의 일상 리듬과 도시를 바라보는 감각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무심히 지나던 광장이 공연장이 되고, 익숙한 골목이 이야기를 품은 예술의 길로 바뀌는 순간, 도시는 배경이 아니라 경험의 장소가 된다. 사람들은 관람객을 넘어 문화의 주체가 되고, 관광객 또한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의 분위기를 함께 호흡하는 존재가 된다.

제주의 문화예술은 자연경관에 기대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삶의 깊이를 지닌 문화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좋은 공연 한 편, 품격 있는 거리예술, 해

설이 있는 공공미술은 거창한 개발보다 더 섬세하게 도시의 인상을 바꾼다. 도시의 자부심은 화려한 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좋은 예술을 만나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자란다.

결국 제주의 봄 문화는 관광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문화가 관광의 장식이 아니라, 관광이 제주의 독창적인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관광이 제주를 알리는 창이라면, 문화는 제주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결이다. 올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느냐가 아니라, 제주가 어떤 문화적 숨결로 깨어나느냐다. 제주의 봄은 관광보다 먼저 문화로 시작될 때 가장 제주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사설

제주 타운홀 미팅, 도약의 마중물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다. 타운홀 미팅 12번째 장소로 제주를 선택하고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유채꽃 피는 따스한 봄날, 제주도에 머물겠다"며 타운홀 미팅을 예고했다. 그동안 타운홀 미팅 개최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제주출대론도 제기됐지만 이날 공식화로 일거에 불식시켰다.

이 대통령은 제주를 관광과 문화,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주의 강점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타운홀 미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의 섬, 세계적 관광수도, 지역경제 혁신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타운홀 미

팅에서는 탄소중립, 관광·K컬처, 신산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미팅 현장에서는 4·3 완전해결, 제2공항 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운홀 미팅 제주 개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오영훈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한 만큼 도민들도 200명 선착순 모집에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주도는 어렵사리 마련된 타운홀 미팅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타운홀 미팅이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열린마당

초고령 사회, 생존 넘어 삶의 완성을 디자인하다



김전선 분정산건강의학과 전문상담사

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비언어적 표현까지 읽어내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분명 인상적이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내면의 평화는 여전히 인간 스스로 완성해야 할 영역이다. 노년은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자아를 통합하고 삶을 재해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참 잘 살아왔다"는 자기 긍정은 어떤 기술보다 깊은 치유의 힘이 된다. 제주에서 이어지는 세대 간 소통과 경험의 나눔은 노년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제 정책은 무엇을 줄 것인가를 넘어, 삶을 어떻게 품게 있게 완성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교류회가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심리적 안전망 구축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노년은 저무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은은하게 빛나는 삶의 완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26 한·중 고령화 사회 학술교류회는 초고령 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려는 논의로 가득했다. 기술과 인간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에서 필자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했다. 우리는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데 머무는가, 아니면 존엄한 삶의 완성을 돕고 있는가.

현장에서 확인한 중국의 스마트 홈 케어와 한국의 지능형 헬스케어 기술은 음성 및 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서적 고품을 감지하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강하영 의원 "강상수 의원 당 지켜달라"

여성 가점 포기 의사도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 의회 강하영 도의원(비례대표)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자 당내 경쟁 대상인 강상수 의원이 탈당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당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 강하영 의원은 23일 SNS에 글을 올려 "강상수 의원은 누구보다 지역을 사랑하고 책임정치를 실천하신 분"이라며 "국민의 힘 이름으로 당당히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

이어 "(경선과정에서 부여되는) 여성 가점이 부담스럽다면 제도가 허락하는 선에서 가점을 포기하겠다"며 "특정인이 아니라 원칙이 존중 받는 공천과 경쟁하고 승복하는 공천이야말로 승리의 시작"이라고 강조.

이상민기자

서귀포 축제 다화용기 지원

○...서귀포시가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축제 다화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시행. 특히 예산 1억원(국비 70%, 도비 30%)을 자체 편성해 직접 사업을 주관하며 지역 축제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인식 개선과 환경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사 주최 측이 다화용기 사용 비용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사전 행사 계획에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시에는 자부담률을 5%로 감면해 친환경 축제 전환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주차장 확보보다 의식 변화가 먼저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 지역 도시사와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지역별 주차장 확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주차난 해소는 삶의 질"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많은 예비후보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원 선거 연동감 강경문 예비후보는 지역구인 신제주로터리 지하에 1500면 규모의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제1도2동 김희현 후보는 현재 3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6~7층으로 증축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라동 강정범 예비후보는 주차가 주민들의 기본권이라며 주차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타에 도시사 후보들도 "주차난

이 곧 민생"이라며 가세해 주차관리시스템을 바꿔 주차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면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수용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면 좋겠지만 현재 제주도의 재부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주차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안은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반드시 비용이 뒤따르는 만큼 '주차는 공짜'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료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장 밖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주일도2동 김희현 후보는 현재 3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6~7층으로 증축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라동 강정범 예비후보는 주차가 주민들의 기본권이라며 주차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타에 도시사 후보들도 "주차난

부고
문순영(前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빙모 김해김씨 중화(향년 93세)께서 서귀 2026년 3월 23일 06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6년 3월 24일(화요일)
▶발인일시: 2026년 3월 25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동국대학교 일산장례식장 8호실
▶장 지: 서울시립송화원-서울현충원
아들 정학중, 호중, 진중, 딸 정미경, 사위 양병훈, 애경, 문순영, 호경, 이국형
※ 연락처: 문순영 010-4691-0039, 정애경 010-4692-0039, 정호경 010-2695-6154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작명☆택일☆사주☆운세☆상담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